

## “광주의 5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전국이 추모

▶ 5·18 40주년 관련기사 2·3·4·5·6·7·10·14·18·20면

추모 리본 뒤덮인 5·18묘지  
40주년 맞아 참배 발길 부쩍  
온라인 추모관 추모 글 쇄도  
내일부터 금남로·5·18광장  
다채로운 공연·행사 펼쳐져

40년 전 광주는 이미 민주와 평화를 실현한 대동 세상을 만들었다. 계엄군의 총칼과 군홧발 아래 짓밟히면서도 굴하지 않고 1980년 광주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시장 상인들은 끼니를 굶은 시민군을 위해 주먹밥을 만들었고, 혈액이 부족하다는 외침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가까이 소매를 건넜다. 시민들은 경찰을 대신해 금융기관·관공서·상가 등을 지키며 질서를 유지했다. 그렇게 광주는 항쟁 기간 단 한 건의 약탈이나 범죄 없는, 세계 민주주의 운동사에 유례 없는 시민항쟁의 교과서가 됐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일이 나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 19 여파에 지난 1년간 준비했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대거 취소·축소됐지만, 5월이 됨에 따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14일 오후 영령들의 안식처인 국립 5·18 민주묘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배객 수가 줄어들고, 방문객들도 서로 거리두기를 하는 탓에 예년에 비해 한가한 모습이었으나, 추모 열기만은 여전했다. 민주묘지 정문을 통과하기 전부터 민주로 양옆의 가로수에 줄지어 내걸린 사회 각계단체의 추모 현수막이 불혹을 맞은 5월을 대변하고 있었다.

정문부터 300m에 이르는 ‘민주의 문’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추모의 글

귀가 적힌 수천 개의 노란색, 흰색, 분홍색 리본이 참배객들을 인도했다. 오늘날 방문객들은 추모리본에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등의 글귀를 적었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참배객이 줄었지만 5월 들어 묘지를 찾는 참배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국립5·18민주묘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7070명이었던 참배객이 13일까지 1만 2568명으로 늘었다. 5일 동안 5498명이 방문한 것이다. 휴일인 16, 17일과 당일인 18일 추모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직접 참배를 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상의 추모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40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5·18추모관과 5·18기념재단홈페이지 사이버잡배 코너란에도 추모의 글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11일 온라인상에서 개관한 ‘5·18 독립영화관’ (5·18을 주제로 한 장편영화 4편, 단편영화 9편 등 총 13편)의 관람 횟수도 꾸준히 상승해 각 편마다 50~60건의 관람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16일부터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다채롭게 이뤄지면서 추모 분위기는 오는 16~18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부터 오는 27일 까지 1980년 오월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5·18 스탬프 투어’가 진행된다. 스탬프투어는 5·18민주광장,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자유공원, 5·18구묘지, 국립5·18민주묘지 등 6곳에서 진행된다. 18일 당일에는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40주년 정부기념식도 예정돼 있다.

특히 16·17일 금남로 일대에서 보수단체의 집회가 예고되면서, 이에 대응해 5월 단체와 5·18행사위·시민단체 등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을 추모 공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추모 공간을 조성하고, 추모 의식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열겠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왜곡·편향세력을 전시하는 ‘놈놈놈’ 전시, 청소년들의 5·18 퍼포먼스행사, 지역연극인들의 거리공연, 금남로 거리에서 2m 간격을 둔 인간띠 잇기, 5·18 자유발언대 등의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나흘 앞둔 1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김원웅 광복회장과 제40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이철우 상임행사위원장, 김후식 전 5·18부상자회장 등 5월단체 회원들이 참배를 위해 묘역에 들어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복회 “5·18편향·‘임 행진곡’ 제창 반대, 부끄러운 과거 반성”

김원웅 회장 등 5·18묘지 참배  
“광주정신 왜곡세력과 맞설 것”

광복회(김원웅 광복회장)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14일 오전 광주를 방문, 이철우 5·18기념재단이사장 겸 5·18 40주년 상임행사위원장과 김후식 5·18 부상자회 전 회장을 비롯한 5·18관련 인사 및 광주·전남 광복회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날 김 회장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무겁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곳 묘역을 참배하며, 광주민주

화운동 희생자의 영전에 가슴 속 깊은 성찰과 반성의 뜻을 표한다”면서 “광복회가 이제 광주정신 왜곡세력과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40년 전 5·18 민주인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해 우리는 ‘광복회보’를 통해 이를 ‘소요사태’로 폄하한 바가 있으며,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보훈처는 5·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거부하면서 그 근거로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들이 이 노래의 제창을 반대하고, 5·18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이어 “사실 광복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가 없다”라면서 “그러나 당시 보훈처의 거짓 발표를 알고도 방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고백했다.

또 “그간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온 반민족세력들이 색깔론으로 광주 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 왔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의 대남 공작용 혁명가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노래’ 등으로 왜곡해 왔다. 5·18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악의 세력’에 우리 광복회도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이제 대한민국을 친일이 아닌 독립의 토대 위에 다시 세우야 한다. 우리 역사의 주류는 친일세력이 아닌 독립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정신은 광주를 넘어, 전 국민의 자부심”이라면서 “우리 광복회는 광주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날 함께 참배에 참석한 이철우 5·18기

념재단이사장은 “김원웅 회장의 5·18묘역 참배를 환영한다. 김 회장의 말씀대로, 5·18정신은 광복회의 독립운동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지만 5·18 40주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진상규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극우세력들의 5·18 왜곡과 편향기가 아주 극심한 상태”라면서 “이는 기독교 친일세력들이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광복회는 앞서 21대 국회의원 후보 전원에게 친일잔당금지법 제정에 관한 찬반의사를 물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3명 190명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광복회는 친일잔당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왜곡을 행사 처벌할 수 있는 역사왜곡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 5·18유공자 ‘민주명예수당’ 지급 시·도의회 지급조례 제정

광주·전남지역 5·18민주유공자에게 매월 ‘민주명예수당’이 지급된다.

1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내년 1월부터 광주에 거주하는 5·18 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않는 유공자 718명이다. 올해 1월부터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유공자 1280명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로써 광주에 거

주하는 5·18 유공자 2000여명이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됐다.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 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지난 13일 전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남지역 모든 5·18유공자

에게 월 6만원의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기존 생계지원비는 7만원으로 낮추고 명칭도 생활지원금으로 변경했다. 생계지원비를 받았던 유공자의 경우 지원금이 감액되지만 민주명예수당을 새롭게 받게 돼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민주명예수당을 받게 되는 전남지역 5·18유공자는 모두 716명으로 파악됐다. /최권일 기자 cki@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기름진 형 피부엔?  
브로앤팁스 네버오일리 올인원  
NEVER OILY ALL IN ONE

• 전국 아리파움 매장을 통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 브로앤팁스 공식홈페이지 | www.brontips.com • www.instagram.com/brontips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